

백제 문양전의 改名을 위한 연구

-부여 규암면 외리 출토 '鬼形文'을 중심으로-

홍재동

(건축사 사무소 흥원마당 소장)

1. 서론

해방 이후 국내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통건축의 실증적 자료들이 폭넓게 수집되고 또 해석되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민족 건축문화의 정체성이 찾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들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소속 일본 학자들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 수집되고 연구되면서 왜곡된 흔적들이 많다는데 있다. 더욱이 분단이라는 현실적 여건은 우리의 연구 영역을 남한 지역에 한정시켜 북한지역의 실증적인 자료는 조사 조차할 수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해 왔던 북한지역과 발해연안¹⁾지방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이었다. 특히 이들 두 지역 중 발해연안 지방은 우리나라 고조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민족이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였던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고대사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²⁾

따라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의 고고학적인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민족의 줄기를 찾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들 요인으로 인한 자료의 한계는 전통건축의 본질과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에 장애가 되어 왔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부여 규암면 외리에서 일본 학자에 의해 발굴되어 이름 붙여진 8쌍의 문양전 중 1쌍인 '귀형문전'을 대상으로, 당시 백제 사람들의 미의식과 역사적 사실 및 역사서의 기록 내용과 발굴 문양전의 조형 특성의 비교를 통해 그 이름이 잘 못 붙여진 것임을 밝히고, 이를 고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 학자들은 그들이 우리 민족사를 왜곡했듯이 발굴된 매장 유물의 이름조차도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 없이 자국에서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마치 본질적으로 적합한 이름 인양 공통분모처럼 붙여 버렸다.(그림 1.)

그렇지만 이 문양전이 발굴된 이후 일본 학자에 의해 연구된 '귀신'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군신으로서 벽사의 신" 또는 "어떤 상징물"로 해석하고 있어서 발굴자가 붙인 이름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미 북한의 역사 계에서는 지리적인 위치와 정통성 부여 의식에서 출발하여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³⁾

이러한 일련의 연구로 발해연안을 중심으로 한

1) 넓은 의미로 발해를 중심으로 남부의 중국 山東반도, 서부의 하북성 일대, 북부의 요서지방, 북동부의 요동반도와 동부의 길림성 중남부 및 한반도 서북부를 포함해서 일컫는다.

2) 이형구, 「한국 고대문화의 기원」, 까치문화사, 41쪽

우리 민족과 문화의 원류가 점차 밝혀지고 있고, 또 남북한의 해빙 분위기를 보면 공동연구가 이루어 질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의 연구를 통해 '문양전'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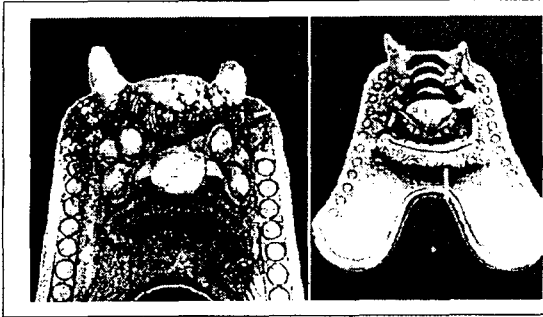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오니 (자료: #内功)

1-3 현재까지의 유사연구 개관

이 '문양전'이 발굴된 이래로 일본과 국내 학자들에 의해 백제 미술의 우수성이 연구된 바 있고, 또 일본을 통해 들어온 북한 학자들의 연구와 국내의 사학계와 민속학이나 미술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이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논의된 바가 없었다.

(1) 국내 학자들의 연구

다만 일반 사학자들 중에는 역사서에서 보여지는 '치우(蚩尤)'씨를 중화족 시조인 '헌원(軒轅)'을 거쳐 중원을 정벌한 뛰어난 무왕으로 주장하는 이도 있다.

1) 한승수 교수의 연구

이들 중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한승수교수는 놀랍게도 「신시본기(神市本記)」에 기록된 동두철액(銅頭鐵額)에 관한 기록과 치우기(蚩尤旗)의 전설,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치우'의 무덤 위치, 우리나라 역대 단군이 '치우'를 만고의 무신·용강의 시조로 우러러 제사지낸 내용과 「진역유기(震域遺記)」⁴⁾에 “‘치우’를 이 민족의 군신으로 우러러 모셨다”는 기록 등을 들어 도깨비의 얼굴로만 기억된 문제의 '문양전'이 '치우'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⁵⁾

2)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구

3) 이형구, 앞의 책, 55쪽

4) 고려때 선비였던 淸平 李峯이 쓴 책으로 환인·환웅·단군의 3신 또는 3聖을 만물 창조의 조상으로 모시는 한편 '치우'를 이 민족의 군신으로 우러러 모셨다고 기술하고 있다.

5) 한승수, “상고사의 재조명”, 「단군기행」, 교문사, 127- 쪽

위 협회가 발간한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⁶⁾에서는 이 '문양전'을 '서수문방전(瑞獸文方塘)'으로 이름한 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거수(巨獸)가 웅장한 자태를 들어내고 하늘에 가득차는 듯이 위풍을 떨치며 다가온다. 두팔을 좌우로 벌리고 큰 눈을 부릅뜨고 큰 입을 벌려 포효한다. 날카로운 발톱이 돋은 발로 해변가를 딛고 우뚝이 섰다. 이 서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까닭으로 거기에 나타났는지 그래서 무슨 의미가 부여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껏 아무도 언급한 바 없어서 알 길이 없다”라고 하였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새로이 발굴된 '문양전'에 발굴자가 임시로 이름을 붙인 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조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미 붙여진 이름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국내 건축 학자들이 쓴 건축역사서에는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발굴자가 붙인 이름과는 다소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⁷⁾ 하지만 근원적인 잘못에 대하여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상해 교수의 연구

다만 이상해 교수는 그의 연구 논문인 “「삼국사기」 옥사조의 재고찰”⁸⁾에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해석을 달리하던 '수두(獸頭)'⁹⁾에 대해 이명중(李明仲)이 저술한 「영조법식 권13 용수두등조(用獸頭等條)」¹⁰⁾를 인용하여 “짐승 형상을 한 기와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지금까지 '귀면와'로 해석했던 학자들의 해석에 잘못은 없는지 새로이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강우방의 연구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와'는 일본인 학자들이 막연히 붙인 이름으로 “벽사를 위해 지붕에 장식했

6) 대한건축사협회,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1998. 11. 50쪽

7) 有光教一, 부여 규암면 문양전 출토 유적과 그 유물, 昭和11년도 고적조사보고, 1936. 68~71쪽

연화문, 와운문, 봉황문, 반용문, 귀형문-1, 2, 산경문-1, 2로 이름하였다. 건축역사서에는 귀면문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8) 이상해, “「삼국사기」 옥사조의 재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지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통권 8호, 1995. 12. 48쪽, 52쪽

9) 김정기는 귀면와로, 신영훈은 수두로, 주남철은 용두나 수두로, 북한 학자 리화선은 「조선건축사」에서 '짐승머리 조각'으로, 북한 번역 「삼국사기」에서는 '돌 또는 흙으로 만들어 문 앞이나 지붕에 설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0) 正脊獸, 垂脊獸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는 것과 “중국의 기와에서는 이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위엄있으면서 크게 분노하는 눈초리, 힘찬 고사리 무늬로 치켜올린 눈썹, 넓적하게 큰 코와 콧등의 주름, 크게 벌린 양입가에서 위로 솟구치며 고사리 무늬로 마무리 지으며 몇 개의 단위로 구성된 갈기 같은 것, 입에 물고 있는 큰 여의보주, 입안 양쪽의 상하에 엇갈리어 있는 날카로운 어금니, 이마 위의 두뿔, 머리 뒷덜미에 있는 연화좌상의 보주 등등”¹¹⁾이 마치 중국의 문헌인 「광아(廣雅)」익조(翼條)에 묘사된 용의 모습과 같고 국내에서 발굴된 여러 문양의 객관적인 분석 내용을 이유로 들어 ‘용면와’라 이름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국 학자들의 연구

1) 왕대유의 연구

진강시(鎮江市) 박물관이 편찬한 「文物 제4기」는 남북조시대 강소 진강에서 발굴된 진강동진화상전(鎮江東晉畫像磚)을 다루고 있다.

이 전에 새겨진 화상은 동이 집단의 영수인 도철형 「치우」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화상전의 아래쪽 양측에는 두 그루의 작은 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이로 인해 「치우」의 커다란 형상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이 거대한 짐승 얼굴은 마치 호랑이와 닮았다. 머리에는 병봉인수리용(井逢人首虯龍)으로 장식하였고, 양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며, 새 발톱처럼 생긴 손을 가지고 있다. 이 형상이 보여주는 특징은 고적과 민간전설 중의 「치우」형상과 아주 일치한다.¹²⁾(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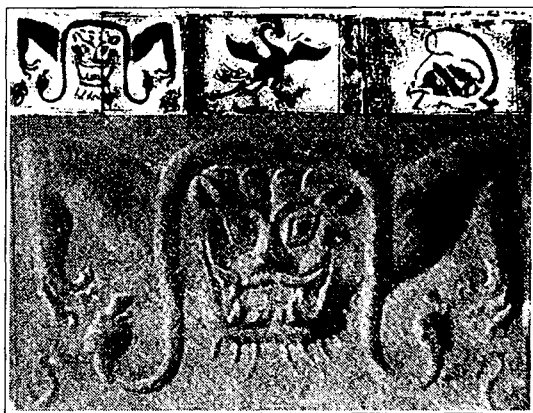


사진 1. 남북조 진강 화상전 (자료: 진강시박물관)

11)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424~428쪽

12) 왕대유 저, 임동석 역, 「용봉문화원류」, 477쪽

2) 주설(朱倓)의 연구

「주설」은 수복남경육조능묘고적 중 중요한 발견(修復南京六朝陵墓古蹟 中 重要的 發現)에서 남경지구의 능묘석곽 중 양임천정혜왕소평묘(梁臨川靖惠王蕭宏墓)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¹³⁾

이 묘 앞에는 보통(普通) 7년(525)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도비가 있는데, 이 비석의 양측면에는 벽사의 의미가 매우 짙은 부조가 새겨져 있다.

이 부조는 신도비를 세로로 정방형이 되게 네부분으로 나눈 다음 그 가장자리를 당초 문양을 새긴 띠로 구획하였다. 이들 구획 안에는 기수(奇獸)와 조수(鳥獸)가 부조되어 있는데, 두 면 모두 위로부터 첫 번째 구획과 세 번째 구획에는 기수가 측면으로 돌진하는 동적인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 첫 번째 구획과 세 번째 구획의 기수는 사람과 닮은 형상으로 커다란 입을 벌리고 양어깨에 깃털을 나부끼며 양발로 서 있다.

윗도리는 벗었는데, 가슴의 양쪽 유방은 선묘(線描)로 나타내었고 배는 두툽게 튀어 나왔다.

아래도리에는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앞다리와 뒷다리의 발끝에는 사나운 날짐승의 발톱과 같은 것이 두 개, 세 개씩 붙어있다.(그림 2.)



그림 2. 양임천정혜왕소평묘 (자료: 朱倓)

3) 장홍수(張鴻修)의 연구

장홍수는 「북조석곽예술」에서 대체적으로 연대가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개별형상에 대해 각각 방제를 표기해 놓은 정광(正光) 3년(522)명(銘)의 풍치처원씨묘지(馮淄妻元氏墓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¹⁴⁾

이 묘지의 개면(蓋面)의 위와 바닥의 4주(四周) 연식(연식)에는 14체의 괴수가 있는데, 각 괴수결

13) 소평은 양(梁) 무제(武帝)의 이모제(異母弟)라 밝히고 있다.
14) 풍치처원씨는 蕪州刺史 元暉의 딸인데 519년 원휘의 사망 후 곧이어 522년에 사망하였다.

에 명자(銘字)가 있어 주목된다. 즉, 장설(長舌), 체전(掣電), 조획(鳥獲), 영찰(櫻撮)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짐승의 얼굴(獸面)에 사나운 짐승의 발톱을 갖고 있으며, 앞발은 3개, 뒷발은 2개이며, 양어깨의 깃털을 휘날리며 힘차게 뛰어올라 질주하는 형태로 의인화된 동작을 하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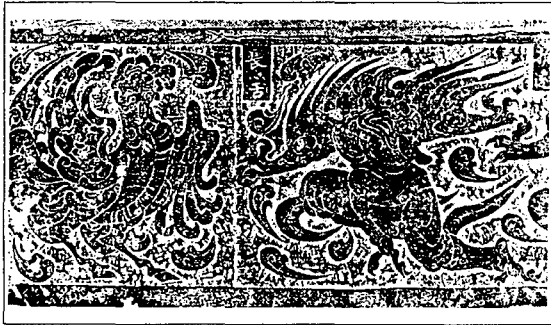


그림 3. 풍치처원씨묘지 화상 (자료: 장홍수)

4) 낙양박물관의 연구

1977년 낙양에서 발굴된 북위 화상석관은 원씨묘지의 화상석과 비슷한 형식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 관의 바닥 좌우 양변에는 각각 12체씩의 신수(神獸), 선금(仙禽)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 역시 진재멸해(振災滅害)와 수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새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현존하고 있는 북위의 묘지·석관에서 보이는 화상들은 모두 낙양 천도 후인 5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로, 이것은 고도(古都) 낙양에 남아있던 한족 고유의 분묘전통과 도교의 유행 등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조의 문화가 서로 접촉했던 6세기에는 정치적인 분단과는 관계없이 공통적인 미술양식을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⁵⁾

(3) 일본 학자들의 연구

1) 小杉一雄의 연구

小杉一雄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귀신형상의 성립¹⁶⁾을 밝히고 있다.

즉, 중국 한 대에 온갖 귀신 숭배와 미신이 일종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극에 달하여, 궁전이나 사당에 잡신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거나 조

각되었다.¹⁷⁾ 이들 귀신의 형상은 화상석(畫像石)이나 무덤의 벽화, 그릇의 장식문양 등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산동성 무량사(武梁祠)'와 '기남한묘(沂南漢墓)'에서 찾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여지는 형상을 「산해경(山海經)」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沂南의 畫象石 墓 獸面紋 자료 : 井內功

이러한 잡신들의 형상은 전한(前漢) 시대를 전성기로 하여 그후 차츰 정리 통합되어 거의 일정한 '귀신상'으로 정착되었는데, 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치우」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특히 뿔이나 갈기 및 오금의 털이 있고, 어느 것이든 맹수의 얼굴에 3개 내지 4개의 손과 발톱을 가지며, 그리고 서 있다는 점에서 귀신과 공통된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남북조시기에 크게 유행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삼국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 시기 국제양식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⁸⁾

2) 村田治郎의 연구

村田治郎은 "중국건축에 사용된 귀면문사 개설 중 남북조 시대 연구¹⁹⁾"에서 소위 일본에서 불리

15) 특히 한족 고유의 장식문양은 6세기 전만 북위의 적극적인 한화정책으로 북조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 유행했던 공통된 시대 양식이라 할 수 있다.

16) 小杉一雄, 귀신형상의 성립, 「미술사연구 제14책」, 조도진 대학교미술사학회, 1977. 16쪽

17) 長廣敏雄, 石刻의 畫像, 「세계미술전집 제14권 중국 3」, 角川書店 1969. 152-153쪽

18) 박대남, "부여 규암면 외리출토 백제 문양전 연구",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론, 1996. 24쪽, 재인용

19) 井內功, "귀면문양의 연구", 井內古文化研究室, 1938. 6~8쪽

어지고 있는 '귀면'과 닮은 형태가 중국에서 성립된 시기를 남북조 시대²⁰⁾라고 추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발표된 小杉一雄의 연구를 새로운 학설이라 동의하고 자국에서 '오니'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원류의 연결고리도 남북조 시대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귀면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단순히 장식을 위한 목적밖에 없다면 당시 사람들이 '귀의 형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상징하려 했을 것이라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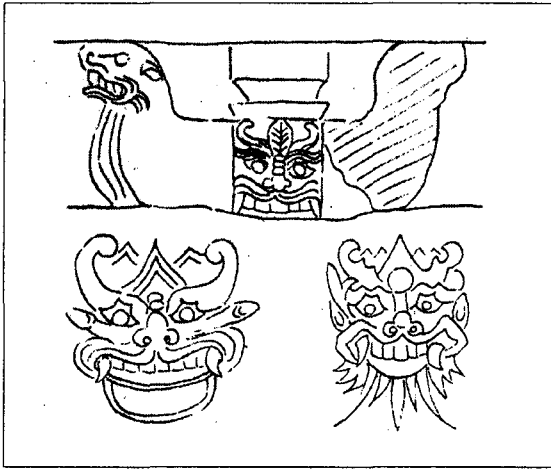


그림 5. 북제의 귀면문 자료 : 井內功

1-4 연구의 범위

우리 역사에서 소위 '귀면문'의 등장은 4세기 후반경의 고구려 벽화무덤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주로 궁궐이나 사원 등 건축물에 사용된 기와류, 출입문 고리, 품격 높은 용구의 장식 등에 쓰이고 있는데,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얼굴만을 크게 부각시킨 예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굴된 것 중 사지(四肢)를 함께 넣어 전신상을 표현한 것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 및 비교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鬼'를 주제로 한 발굴 유물

명 칭	시 대	출 토 지	비 고
무덤벽화	고구려	집안五灰분4, 5	벽화
鬼形文磚	백제	부여外里사지	전
飾履	신라	경주飾履무덤	금속

2. 발굴 문양전의 내용

2-1 발굴 당시의 상황

이들 문양전은 1936년 3월 부여 규암면 외리 에서 당시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有光敎一에 의해 발굴되었다.

당시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들은 나지막한 보리밭의 얇은 지표 아래 남북 방향으로 열 지어 놓여 있고, 그 동쪽에는 평기와 및 와당을 진흙으로 쌓아 올린 높이 25cm 정도의 기와열 덩어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전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서 훗날 사용 장소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사용장소에 대하여는 원래 사찰과 같은 곳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 쓰인 벽 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¹⁾

2-2 문양전의 내용

(1) 유형 및 형상

이들 문양전은 완제품 42매로, 이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보면 8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마치 동일한 2종의 문양끼리 對(對)를 이루도록 구성한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각각 29.7cm, 두께 4cm의 정방형으로 거의 같고, 또 낮은 부조로 세각(細刻)되었고, 더욱이 당시까지 발굴된 바 없는 다양한 문양요소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통해 발달된 백제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 각 유형의 표현내용

이들 8가지 문양전 유형의 구성을 보면, 4가지의 문양전은 문양을 정방형에 딱차례 배치하여 독립된 구성을 하였고,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중앙에 원형의 연주문(蓮珠文) 띠를 두르고 그 안에 중심 문양을 배치하여 연속적인 회전감과 운동감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더욱이 이들 전 중에는 네 귀에 4등분한 '귀꽃'이 있어 너장을 '통줄눈'으로 붙일 경우 새로운 하나의 꽃무늬가 형성되어 문양의 연속성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다.(사진 9.)

첫 번째 유형 중 하나는 화면 아래쪽에 2~3단의 바위가 있고, 그 위에는 등실등실한 바위산을 앞쪽에 3개소, 중간에 2개소, 뒤편 위쪽에 1개소를 당시의 시방식(視方式)인 부감시(俯瞰視)²²⁾로 세운

20) 제4세기에서 제6세기까지

21) 有光敎一, 앞의 고적조사보고서, 618~721쪽

후, 그 가운데 부분을 뾰족한 3개의 산으로 처리한 다음, 산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을 놓아 화면을 짙차게 구성한 것으로, 이를 '산경문(山景文)-1'로 이름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화면을 지상과 하늘로 이등분한 후 부감하여 화면 아래에는 산수문을,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구름을 놓고, 그 중앙에는 지상과 하늘의 매개자인 봉황을 놓아 구성한 것으로, 이를 '산경문-2'로 이름하였다. (사진 2, 3)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의 모습에다 안면과 사지를 마치 외수(畏獸)처럼 부감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그 배경으로 하나는 연화좌대(蓮花座臺)를 놓았고, 또 다른 하나는 바위산을 병풍처럼 두른 것으로, 둘 다 '귀형문(鬼形文)-1, 2'로 이름하였다. (사진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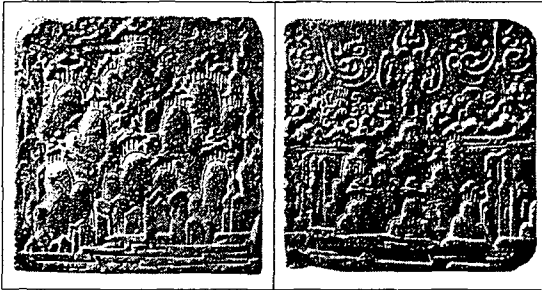


사진 2. 산경문-1 사진 3. 산경문-2
자료 : 有光教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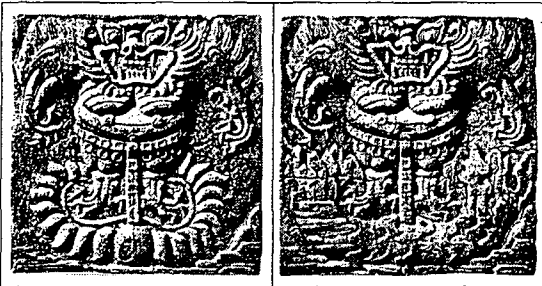


사진 4. 귀형문-1 사진 5. 귀형문-2
자료 : 有光教一

세 번째 유형은 연주문(蓮珠文)의 띠를 두른 후 그 안에 툇 불거져 나온 두 눈에 크게 벌린 입과 사나워 보이는 송곳니와 앞니빨을 드러내고 있는 용문(龍文)과 같은 모습을 도안한 것으로 이를 '반용문(蟠龍文)'이라 이름하였다. (사진 6.)

네 번째 유형은 연주문의 띠를 두르고 그 안에 마치 구름 위를 힘차게 나는 봉황(鳳凰)처럼 전자태²³⁾를 띠를 중심으로 울동감이 넘치게 도안한 경우로, 이를 '봉황문'이라 이름하였다. (사진 7.)

다섯 번째 유형은 10개의 연꽃잎을 바깥쪽으로 오몰아 들게 한 후, 각 연꽃잎 안에는 유려한 인동문을 새겨 장식하고, 꽃잎도 연꽃잎처럼 오므라든 형상으로 처리한 경우로, 이를 '연화문(蓮華文)'이라 이름하였다.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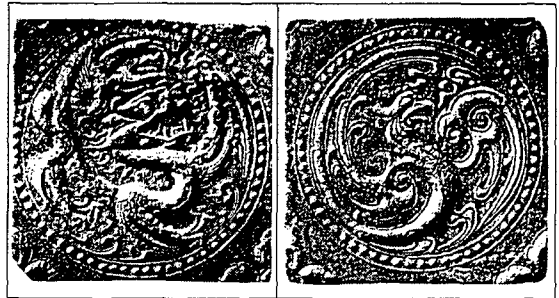


사진 6. 반용문 사진 7. 봉황문
자료 : 有光教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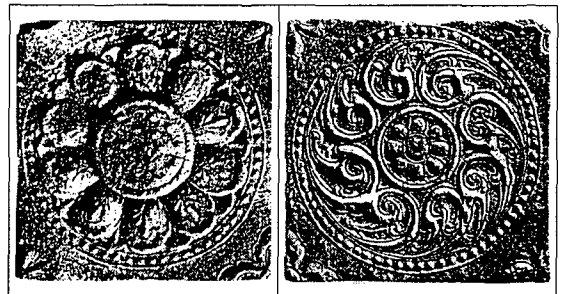


사진 8. 연화문 사진 9. 와운문
자료 : 有光教一

여섯 번째 유형은 꺾게 돌기된 선으로 원형의 띠를 돌린 후 그 띠 안쪽 중앙에 다시 작은 원형의 띠를 두르고, 그 속에 자방을 중심으로 8개 꽃잎의 작은 연화문을 새겨 장식하고, 바깥 띠와의 사이에 소용돌이치는 여덟 개의 구름 모양을 배치한 경우로, 이를 '와운문(渦雲文)'이라 이름하였다. (사진 9.)

(3) 문양전의 사용장소 및 용도

이들 문양전의 뒷면 네 귀에는 작은 홈이 있는데, 마치 축을 꽂기만 하면 서로 쉽게 연결할 수

23) 머리부터 몸, 꼬리까지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이름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출판한 「한옥의 건축무늬와 도예」 52쪽에 반용이 적실하나 아니냐 하는 의문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22) 洪宰東, “부석사의 공간구성 연구”, 울산대 박론, 1998. 10-11쪽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생김새로 미루어 보아 이들 각각의 문양전을 서로 연결하여 건물 또는 무덤의 벽면 장식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6.)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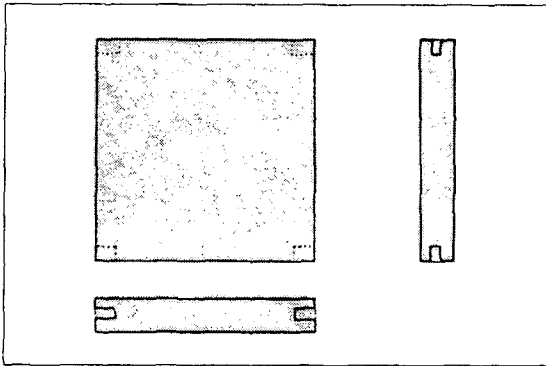


그림 6. 문전 뒷면 자료: 有光教一

지금까지 이들 전의 용도에 대하여는 앞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첫째, 이 전의 발굴자인 「有光教一」 씨가 발굴 보고서에서 논한 이래로 지금까지 막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사찰의 불단을 장엄(莊嚴)하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발굴지 근처에서 사지(寺地)나 다른 건물지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들이 발굴된 바 없고, 대지 또한 건물이 들어설 정도의 충분한 폭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전이 발굴된 장소를 사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이나 삼국의 경우에 문양전으로 불단을 장엄하였다는 기록은 한 번도 발견된 바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 무덤의 내부를 장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문양전 각 쌍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음양의 조화를 고려한 도교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불교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훗날 여기에다 불교적 요소를 가미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각 각은 도교의 음양이론으로 제작되었고, 또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보여지는 문양과도 통하는 것으로 원래 무덤용으로 축조했던 것이 후대에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²⁴⁾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은 백제가 무덤을 축조하거나 묘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신사상을 상당히

고려하였다는 점²⁵⁾으로 보면 가능성 있는 판단이라 할 수 있으나, 이미 발굴된 전축 무덤인 공주 무령왕 능이나 송산리 6호분에서도 주로 회화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 사용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 추론해 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궁궐이나 조원(造苑)건물의 벽면을 장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전에서 보이는 문양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신선 도가사상(神仙道家思想)²⁶⁾을 깊이 간직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당시 사상적 바탕이 이들 문양전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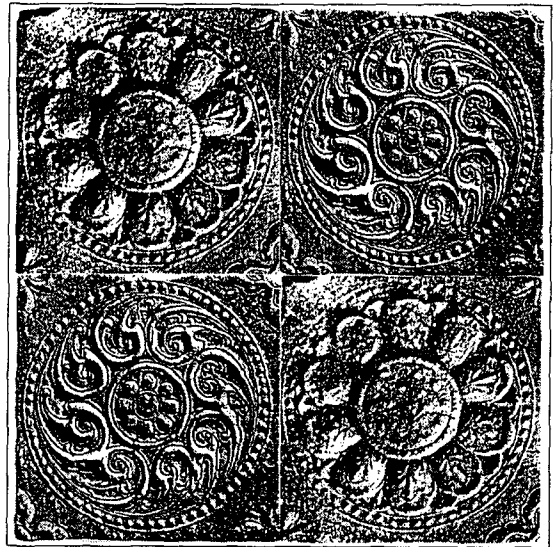


사진 10. 문양전의 연결

이처럼 백제인이 그들의 부드러운 심성과 기질을 이러한 문양을 통해 표출하려 했던 것은 신선사상과 불로장생, 국가의 안녕 등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백제가 사비성에 천도한 후 도성안에 사비궁을 비롯하여 망해궁, 황화궁 등을 호사스럽게 조영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특히 무왕 35년(634)조에 궁원 연못으로 3만 여평의 궁남지(宮南池)를 만들어 20여리로부터 물을 끌어 들였고, 또 연못 가운데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본딴 섬을 만들어 정자를 조영하였다는

25) 강인구,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1977. 21-22쪽

26) 秦弘燮, 「삼국시대 미술의 정신세계」, 「한국사상사대제 II」,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1. 721-724쪽

姜仁求, 「백제의 역사와 사상」, 「전통과 사상 IV」,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0. 65-69쪽

24) 박대남, 앞의 논문, 5쪽

것²⁷⁾ 등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양이 세각(細刻)되고 연결 홈이 있는 것을 보면 사용에 제한이 따라 벽면을 장식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백제문화의 형성과 특징

백제는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고구려·신라와 함께 주요 고대문화의 원류로서 민족문화의 발전에 새로운 힘과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는 바탕이 되어 왔음은 물론, 동아시아 고대문화 형성에도 커다란 중심 역할을 하여 왔던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3-1 대외 교류를 통한 문화의 형성

백제는 BC18년경부터 AD475년경까지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구려계 망명 집단이 세운 성읍국가(城邑國家)를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왕국을 건설하였다. 당시 삼국간에는 치열한 정복전쟁을 벌여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고, 활발한 대종교섭을 통한 외교적 역지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호 세력균형과 견제로 자존의 길을 모색하였다.²⁸⁾

그러다가 5세기 말에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벌로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겨야 했고, 그 뒤인 538년에는 다시 수도를 부여로 옮겨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는 등 국가의 모습을 일신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모든 정치제도는 이 부여(泗批) 시대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정치상황을 겪으면서도 각 시기마다 다각적인 외교활동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폭 넓은 문화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건국 초기에는 낙랑(樂浪)과 대방(對方)을 통해 중국문화와 접하고, 근초고왕 27년(372)에 이르러 중국의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朝貢)²⁹⁾하고, 진의 간문제

는 백제왕에게 봉책(封冊)을 실시하였다³⁰⁾는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백제의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조공과 봉책으로 이어진 관계로, 이러한 행위는 이들 두 나라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었다.³¹⁾ 그러나 근초고왕 시기의 대중관계는 진·송 등 남조와의 관계에 국한되었지만 개로왕대에 이르면 이러한 외교노선이 변화여 북위와도 이루어지게 된다.³²⁾

더욱이 사비천도 후인 성왕 19년(541)에는 양나라에 조공하고 모시박사(毛詩博士), 열반등경의(涅槃等經義), 공장(工匠), 화사(畫師) 등을 요청하니 양에서 이에 따랐다³³⁾라는 기록을 통해 성왕의 문화 중흥 의지를 살필 수 있고, 위덕왕대에 이르면 그전까지의 남조 일변도의 대중 외교정책이 북조까지 확대되는 대중 다변외교적 수단을 발휘하여³⁴⁾ 선진문화를 진취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백제인의 개성이 넘치는 조화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³⁵⁾

3-2 건축술의 수용과 전파

앞서 살펴본 대중 외교정책은 백제의 건축양식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밝혀주는 유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역시 백제의 건축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같은 시대의 중국과 일본의 건축인데, 두 지역 모두 백제 건축을 명확히 규명해 줄 정도로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들 두 나라와의 교류관계를 통해 건축술이 매우 뛰어 났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것은 백제의 양에 대한 조공 목적의 일면으로, 동시에 종교, 문학, 공예, 등 고도의 대륙문화에 대한 당시(성왕) 백제인의 흡수능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함을 시사하면서 불교예술과 관계가 깊은 화사(畫師)를 초청한 사실 등을 덧붙이고 있다.

30) 유원재, 「백제의 역사와 문화」, 242쪽

이때에 이루어진 백제의 조공과 진의 봉책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쌍방적인 외교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31) 129회의 대중관계 중 조공 65회, 봉책 25회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임을 알 수 있다.

32) 이처럼 남북조시대에 이루어진 백제에서의 조공과 중국에서 행한 봉책은 남북조시대라는 중국의 특수성과, 삼국의 정립이라는 한반도의 시대성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3)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성왕 19년

34) 성왕으로부터 의자왕까지 대중국과의 조공과 봉책은 69회로 기록되어 있다.

35) 무령왕릉 출토 유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04쪽, 재인용

28) 양기석, 「백제의 해외진출」, 「계간경향」, 87여름호, 경향신문사, 78-79쪽

29) 김상기, 「동방문화교류사론공」, 3~4쪽

국가간의 물질교환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대륙의 선진적 문물의 수입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일례를 양서열전(제48) 동의전 백제조에 ……中大通六年, 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並工匠畫師等, 勅並給之…를 들고

백제의 성왕 12년과 19년에 모시박사와 공장·화사 등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건축기술이 백제에 비해 발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더욱이 이 기술자 중에는 건축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³⁶⁾

공주 송산리 6호분이나 무령왕릉과 같은 전축분도 구조나 벽돌의 문양 등이 육조시대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공주에서 발견된 육조식 연화문과 인동문 벽돌(전) 및 회도(灰陶)파편, 부여에서 발견된 치미 파편 등을 볼 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사비시대의 화려한 궁궐건축, 궁남지와 같은 조원기술 등으로 백제의 건축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건축기술이 신라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전해져 백제의 장인들에 의해 세워진 법륜사를 통해 건축수법의 우수함을 알 수 있다.³⁷⁾

또,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의 파편에도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흡사한 것이 양나라 남경에서 출토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경주와 일본의 법륜사와 아스카에서도 출토되는 것은 보면 조불공과 조사공³⁸⁾, 와박사³⁹⁾를 보낼 정도로 건축술이 선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3 문양요소의 성격 및 특징

(1) 문양요소에서 보여지는 당시의 사상

이들 출토 문양전은 내용에 따라 크게 신선사상이나 도가사상을 상징하는 것들과 불교의 상징 문양인 연화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선·도가사상을 함축하는 문양이 중심 문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도가사상에 대한 인식이 싹터 왔으며, 더욱이 정치·경제·문물제도가 정점에 이르는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는 도가사상에 깊이 젖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백제인의 사상적 바탕이 여러 문양전을 통해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문양요소에서 보여지는 미의식

따라서 우리는 이들 문양요소를 통해 당시 백제 사람들이 그들의 부드러운 심성과 기질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의 대외 다변 외교적인 산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어도 결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창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⁰⁾

대체적으로 이들 문양들은 중국의 한 대로부터 남북조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고구려와도 다르며, 중국의 남북조와도 달라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수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백제는 부여로 천도한 이후 적극적으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그들만의 독창성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양의 표현상 백제적인 특징의 하나는 그 표현이 부드럽고 등글며 온화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양 구성력에 있어 변화와 창조를 통하여 그들만의 고도의 미의식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적인 특징은 당시의 모든 공예품의 형태나 불상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신라와 고구려, 기타 중국의 예들과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더욱이 이들 문양전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특징은 백제의 다양한 문양요소가 결합된 집결체로, 백제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고구려 후기 무덤 벽화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어 고구려보다 앞서고 있는 백제문화의 양상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이렇게 삼국의 어느 나라보다 문화가 선진 되고 있는 것은 백제만의 큰 특징이 아닐 수 없다.⁴¹⁾

4. 역사서의 기록 고찰

4-1 지역적·민족적 관련성

중국의 역사서에 삼묘족(三苗族)은 강수, 회수, 형주의 땅에 살았는데,⁴²⁾ 4000년 전 현재의 호북, 호남, 강서 등지는 이미 묘족⁴³⁾이 점령하고 있었

3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37) 문헌자료에 따르면 백제는 100여년 동안 불교를 위시하여 건축, 조각, 서화, 공예, 조와기술 등의 각 분야에 걸쳐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8) 위덕왕 24년(577년) 일본 敏達王 6년

39) 「일본서기」 권21 崇峻 원년(588)

이해에 백제국이 승 해충, 영근 등을 보내 불사리를 헌상하였다. ……寺工, ……鑑盤博士, 瓦博士, ……畫工을 받쳤다.

40) 박대남, 앞의 논문, 59쪽

41) 박대남, 앞의 논문, 60쪽

42) 사마천, 「중국사기」 권1,

고, 중국에 한족이 들어오게 된 후에 차츰 이들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이 민족의 나라 이름은 구려(九黎)이며 군주는 '치우'44)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사학자도 한족 이전에 우리 민족이 이미 이 곳을 점령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또 이 묘족은 중국의 요임금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기록에도 보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인 모두가 묘족의 후예라고 하였다.

더욱이 '치우'는 구려의 후예45)로 자오지환웅(慈烏支桓雄)인 '치우'를 군주로 하는 구려국의 백성들을 묘족 혹은 유묘(有苗), 삼묘(三苗)라고 하며 현대의 묘족이다. 또 「산해경」에서도 묘민은 실로 '치우'의 후예라고 기술하고 있다.46)

신지(神誌)씨는 옛글자를 만들기도 했고, 고시(高矢)씨는 세상을 장악하고 곡식에 대한 벼슬자리도 만들어 후세에 전했다. '치우'씨와 '신지'씨는 모두가 묘족의 후예로 점점 번창하고 번성해갔다. 특히 '치우'씨의 씨족들은 서남 땅을 모두 점거하다시피 하였다.47)

또한 중국의 기수지방에서 쇠뿔을 머리에 이고 민속놀이를 하는 것과 태원지방에서 '치우'신께 제사지낼 때 소머리를 제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의 옛날 지명에 우수주(牛首州), 우수하, 속말(粟鞅), 속말수(水) 등이 있었

고, 관명에는 서불한, 각간(角干) 등이 있었는데, 이는 맥족 특유의 호칭으로 지금도 지위가 높은 자를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48) 을 보면 충분한 단서가 된다.

이처럼 여러 역사서에서 동일 민족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한말에 한국에 온 Hulbert가 삼한 민족의 언어와 풍습이 서로 독특하게 다른 듯이 발표함으로써, 또 그 뒤에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따라 남쪽 지방이 남방 문화권에 속한다는 식민적 사관에서 도출된 무모한 이론에서 정녕 삼한 민족이 다른 민족처럼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예·맥·한은 한민족 구성의 뿌리로 이들이 각 지역적인 분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 민족이지 결코 다른 민족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원후 3세기경의 「위지 동위전」에 나타나는 한민족은 동일 민족이라 할 수 있다.49)

다만 이 문제는 문헌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소 실증성과 객관성을 갖기에는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마음먹고 고고학적·인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성질이라 여겨진다.

4-2 '치우'와 '치우'신에 관한 기록

(1) '치우'에 관한 기록

'치우' 천황은 단군조선에 앞서 1천5백년간 계속된 신시(神市)시대 배달나라의 14대 자오지환웅이다. 재위는 109년간이며 수는 151세이다. 황화유역에서 일어나 중국 산둥과 회수지역을 정토한 무황(武皇)으로 최초로 투구를 만들어 쓰니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쇠 이마에 구리 머리를 가진 분50)이라고 표현했다. 또 큰 안개를 일으키고 물과 불까지 부렸으므로 한나라 「유방」은 동이족이 아님에도 고향의 풍속을 따라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 중국 '현원'은 투구를 만들어 쓰고 싸우는 천황에게 너무 혼나서 일생 동안 배개 한번 베 보지 못하고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쇠로 만든 투구는 이때부터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시본기(神市本記)」, 「진역유기」등 여러 사서와 관중(管仲)의 「지수편(地數篇)」에는 "우리 '치우'

43) 묘족은 중국 태백산으로부터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을 지나 양자강 남북에 이르기까지 주로 거주했고, 환웅의 한족은 양자강 이북의 안휘성, 산둥성, 서요하지역, 만주지역, 한반도에 주로 퍼져 살면서 후세에 두 민족은 완전히 섞이었고 한반도는 고대 한국의 잔류 토착민에다 묘족과 한족이 다같이 청동기와 철기를 가지고 들어 왔으니 한국 민족과 중국 민족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44) 왕동령, 「중국민족사」, 4쪽
 「한단고기」, 32쪽
 ……苗族之國名爲九黎君主名蚩尤……

45) 蚩尤爲九黎之後

46) 박문기, 「맥이」, 정신세계사, 1987. 257쪽

47) 규원사화, 「태시기」, 14쪽
 ……神誌氏所作古字厥高矢氏亦世掌穀之職而後世蚩尤高氏神誌之苗裔繁衍最盛蚩尤氏之族則占居西南之地……

박문기가 저술한 「맥이」, 258쪽에는 '신농'씨와 '치우'씨는 동방의 우리민족인 맥족으로 '신농'씨가 추운 지방에서 남하했기 때문에, 하남의 따뜻한 기후가 맞지 않아 산둥으로 도움을 옮긴 것과, 또 봄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여 붉은 채찍으로 초춘제(助春祭)를 지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치우'씨가 '현원'과의 전쟁에서 뜻을 완전히 펴지 못하고 봉하신 후 그 후예들이 남으로 내려가 묘족이 되었으니 이 묘족들은 중국민족이나 일본인의 납작한 결발(結髮)의 상투가 아닌 우리민족 특유의 추결(뽀족한 상투)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48) 박문기, 앞의 책, 260쪽

49) 김정배, 「한국민족문화기원」, 103쪽

50) 유성준, 「중국상고신화」, 상해문예출판사, 693쪽, 蚩尤之神, 銅頭鐵鬚.

천황은 안으로 병사를 훈련하고 밖으로 중국의 유망이 쇠약해지는 것을 살피다가 이윽고 출정하였다. 갈로산의 철광을 캐어 칼과 창, 갑옷, 그리고 활을 만들어 무장하고 연전연승 질풍과 같이 쳐들어가서 무려 열두 제후국을 평탄하니 적의 시체가 들에 가득 찼으며 서토(西土=중국)의 백성이 모두 무서워서 도망하여 숨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비석박격기(飛石迫擊機)를 사용하였고 마침내 너우를 일으켜 능히 산과 물까지 바꾸는 신통력을 가졌다.⁵¹⁾”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와 ‘운급(雲笈)’의 「현원기(軒轅記)」에는 “몸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며,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지고, 모래를 먹으며 그 위세가 천하에 떨쳤다.⁵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치우」 씨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이처럼 표현하여 전하여진 내용이라 여겨진다.

유성준의 「중국상고신화」에는 “「치우」씨의 무덤이 지금의 산둥성 수장현(壽張縣)에 있는데, 높이가 일곱길이나 되고, 주민들이 항상 10월이면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³⁾ 또 그의 무덤에서 연기 같은 것이 휘날리면 난리가 난다는 전설이 널리 퍼져 있고, 또 치우기(蚩尤旗)라는 별이 하늘에 있어 병란을 예보해 준다⁵⁴⁾고 하니, 그 영특한 혼과 씩씩한 녀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전하여 지고 있다.

또한 ‘치우’천황은 중국과 한국의 무신(武神)으로, 한나라 ‘고조(유방)’도 ‘치우’사당을 짓고 제사하였다고 전한다.⁵⁵⁾

(2) ‘치우’신에 관한 기록

‘치우’는 다섯 종류의 무기 창시자⁵⁶⁾로서 강대한 힘을 가졌는데, 군신으로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신으로 되었다.⁵⁷⁾

「사기 봉선서(史記 封禪書)」에는 진대(秦代)에 가장 중대한 제사였었던 입신(立神)의 하나에 「치우」는 군신으로서 천지에 다음가는 제 3의 순위로 헤아려지고 있고, 또한 「사기 고조기(史記 高祖記)」에는 고조가 패(沛)라는 데에서 기(旗)를 올릴 때에 우선 ‘치우’에게 제사 지내어 승리를 기원하고, 천하를 통일하고자 도읍을 장안으로 정하여 ‘치우’신의 사당을 세우게 했다⁵⁸⁾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마수전(馬授傳)」에도 초기에 무기고에서 ‘치우’에게 제사지내는 이야기가 있고, 또 ‘문선(文選)’에 있는 후한(後漢)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서도 황제가 ‘치우’를 멸한 후 천하가 또다시 혼란해졌기 때문에 용어하도(龍魚河圖)에는 오히려 ‘치우’의 형상을 그려서 천하를 위압했다⁵⁹⁾고 하는 이야기가 전하여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두가 후한시대에 「치우」가 옛날 전설 가운데 지위와 덕망이 높은 군신으로서, 또 장수들의 용강(勇強)의 상징으로서, 또 은신(恩神)으로서 두텁게 신앙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 삼성출판사가 발간한 「대세계의 역사」에는 ‘치우’ 또는 ‘치우(治尤)’로 표기하며, 자오지환용으로 신사에서 도읍을 청구(靑邱)⁶⁰⁾로 옮긴 무(武)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처음으로 구리와 쇠를 사용하여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그 형상을 동두철액(銅頭鐵額)이라 표현하였다. ‘치우’의 모습은 산둥성에 있는 한대의 무씨사의 화상석에 그림으로 남아있고, 환인, 환웅과 더불어 삼황(三皇)이라 추앙되고 있다.

‘치우’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은 안함노(安含

51)……葛盧之山發而出水金從之蚩尤受而制之以爲劍鎧矛戟……

치우제가 쇠를 캐내어 병장기를 만들었다는 갈로산에 대한 기사를 「산해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52)……蚩尤始作鎧甲兜 時人不識以爲銅頭鐵額……

53) 劉城准, 「중국상고신화」, 상해문예출판사, 692쪽

蚩尤家在東平郡壽張縣關鄉城中高七丈民常十月祀之

54) 유성준, 앞의 책, 694쪽,

……連他的星象一出現, 就預示着天下大亂,……

55) 유성준, 앞의 책, 693쪽,

「史記·高祖本記」集解: “蚩尤好五兵, 故祠祭之求福祥也.”

56) 유성준, 앞의 책, 639쪽,

……, 始製五兵.

57) 小杉一雄, 앞의 논문, 16쪽

58) 劉城准, 앞의 책, 692쪽, 「史記·封禪書」 rein용

…(天下已定)令祝官立蚩尤之祠於長安

59) ‘치우’씨와 ‘현원’의 전쟁신화가 내려오면서, 전통 사상과 사대 사상의 지배를 받아, ‘치우’씨가 마치 전설속의 괴물에 가까움을 면치 못하니, 그 옛날 신화의 본지(本旨)를 잃은 것이다.

60) ‘蚩尤’ 天皇의 정치 중심지 또는 국명으로. ‘金弘植’ 編 대영출판사 刊 「국사대사전」, 1533쪽에서는 “이것은 본디 동방 바다밖에 있는 신선이 사는 세계의 이름인데, 또 하늘에 청구라는 별이 있어서 그 별이 우리 나라 땅을 밟고 있다는 신앙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별칭으로 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글자 뜻을 보더라도 靑은 오색에서 동방을 나타내는 빛이고, 邱는 땅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청구는 곧 동방을 의미한다.

老)가 저술한 「삼성기전(三聖記全)」상편에 나오는 설이며, 당시에 철을 사용하였다는 설에 대하여는 아직 고고학적인 확정이 될만한 자료가 없으나 동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⁶¹⁾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역사서의 기록에 자신도 그러하다고 느끼며 앞으로의 발굴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찾아지리라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임을 알 수 있다.

5. '치우'상의 표현특성과 문양전의 조형 특성 비교

5-1 '치우'상의 표현 특성

여러 전설 가운데 「술이기(述異記)」⁶²⁾에는 “세상에 이르기를 몸은 사람이지만 소의 발굽을 하고 있고,…… 여섯 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 '치우' 잇발은 길이가 2촌이나 되고 또 너무 견고하여 바술 수가 없었다. ……구렛나루 수염이 검극과 같으며 머리에 뿔이 있어 현원의 군사와 싸울 때 뿔로서 사람을 받으니, 적들이 능히 앞을 향해 오지 못했다”⁶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2.)

이것은 당시 전쟁시에 아군이 투구를 쓰고서 두족전⁶⁴⁾을 하였는데, 이를 당시 사람들은 마치 뿔로서 사람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여 현재까지 그렇게 전하여 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5-2 문양전의 조형특성

이 문양전의 구도를 보면 당시의 시방식인 부감시로 사람의 모습을 화면의 가운데에 세우고 그 배경으로 하나는 연화좌대를, 또 다른 하나는 바위산 등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몸 전체의 구도를 보면 부감시로 상체를 강조했는데, 마치 힘을 과시하듯 허리를 구부정하게 움츠린 상태로 어깨를 으쓱 치켜올리고 크고 긴 두팔을 좌·우로 활짝 벌린 자세로서 큰 소리를 지

르고 있는 듯 하다.

다리는 근육이 매우 발달된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표현하였는데, 두 발로 연화좌좌와 바위산을 딛고 우뚝 선 모습이 마치 화면 전체를 짓누르는 모습이다.

얼굴을 살펴보면, 눈은 크게 부릅떠 마치 여러 개의 눈이 포개진 것처럼 보이며, 크게 벌린 입에는 아래위에 긴 송곳니가 날카롭게 뻗어 있다. 얼굴 양면에는 구렛나루 수염이 덩수룩하게 뻗어 있고, 양어깨에도 마치 끝이 칼과 창 같은 깃털이 솟아 있다.

손가락은 한쪽에 3개씩 도합 여섯 개를 가졌는데, 영락없이 소의 것과 닮았다.



사진 11. 귀형문전-1 상세
자료 : 有光教一

릿도리는 벗었는데, 가슴은 마치 여자의 유방처럼 크고, 또 거기에 커다란 것꼭지가 또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우람한 체형과 잘 어울린다.

허리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허리띠(鑄帶)를 매었는데, 고리 장식도 달렸고 긴 수식(腰佩)도 느려뜨렸다.⁶⁵⁾ 그런데 이들 허리띠 장식 모두는 마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닮아 있어 당시 최고 지배계층 만이 지닌 상징적 유물인 것처럼 보인다. (사진 12.)

아래 도리에는 허벅지까지 보이는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그 아래로 두 다리의 울퉁불퉁하게 잘 발달된 근육이 튀어 나와 있어서 조형상 윗도리와 잘 어울린다.

발에는 한쪽에 네 개씩 도합 여덟 개의 날카로

61) 金殷洙, 「주해 檀檀古記」, 가나출판사, 1985, 27쪽
안함노 撰 「삼성전기 상편」을 재인용하고 있다.

62) 5-6세기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령하고 괴이한 이야기기를 모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책

63) 유성준, 앞의 책, 688-689쪽

……俗云 : 人身, 牛蹄, 六手……蚩尤齒, 長二寸, 堅不可碎……耳髮如劍戟頭有角與軒轅闕以角軀人人不能向……

박문기, 「대동야」, 세계사, 44쪽

64) 두족법 = 박치기

65) 有光教一, 앞의 보고서, 69~70쪽

은 발톱이 달렸는데, 이것 역시 소의 것과 닮았다. 이들 두 개의 대좌 중 하나인 연화대좌는 끝 부분이 뾰족한 흘 연꽃잎으로 앞사귀 끝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들었고, 또 아래 양쪽 모퉁이에는 산봉우리가 반으로 나누어 모두가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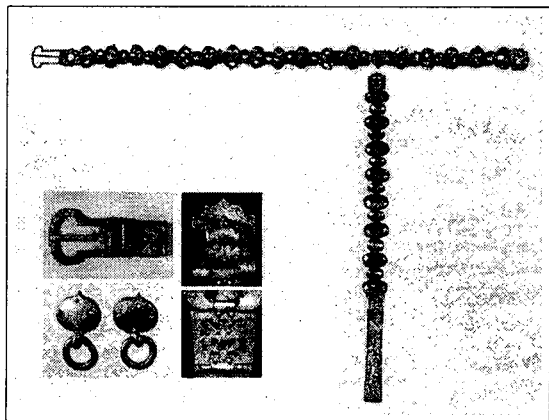


사진 12. 무령왕릉 출토 허리띠
자료 : 공주박물관

다른 하나인 바위산 대좌⁶⁶⁾는 아래 양쪽 모퉁이에 산봉우리가 좌우 대칭이고, 또 화면을 반으로 나눈 아래쪽에 뾰족뾰족한 산모습의 봉우리가 구



사진 13. 귀형문전-2 상세
자료 : 有光教-

66) 이성미, 「백제 미술의 대외교섭 -백제시대 서화의 대외교섭-」, 도서출판 예경, 1998. 10. 202쪽
이와 같은 모티브가 고구려 강서중묘에서 현무의 배경으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름 위에 솟아 있고, 바위 아래쪽에는 물이 출렁거리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상은 당시 시방식인 부감시에 의해 표현됨으로써 충분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고, 또 연화대좌나 바위산 대좌를 밟고 서 있는 형상을 통해 당시 발달되었던 도교와 불교가 하나로 뭉쳐진 일면도 살필 수 있다.

5-3 상과 전의 조형특성 비교

우리의 시방식인 부감시에 의해 낮은 부조로 조각된 이 문양전은 앞서 살펴 본 「술이기」의 내용과 너무나 닮은 조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몸은 사람의 모습이며, 부릅 뜬 두 눈은 마치 여러 개의 눈이 포개진 것처럼 보이고, 괴기하게 보이는 팔다리, 더욱이 한쪽에 네 개씩 여덟 개의 발톱과 3개씩 여섯 개의 손가락은 영락없는 소의 것으로 표현했고, 얼굴 한가득 벌린 입 속의 이빨을 보면 그 길이와 굳세고 단단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구렛나루와 수염은 여지없는 칼과 창끝의 끝처럼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술이기」와 문양전의 조형이 닮았다는 사실은 당시 백제가 북조의 진, 북제, 북주에 사신을 보내는 등 여러 나라들과 다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한 기록과 비교해 볼 때 백제 미술과 북조 미술의 상호 연관 관계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⁶⁷⁾ 백제 사람들 만이 갖는 고도의 미의식이 표현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 이 문양전을 잘 살펴보면 무섭다기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강인함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너무 연약하고 상냥한 모습들로 조형되어 있어서 그 표정이 매우 우스꽝스럽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삼실무덤 벽화에서도 당시 장수들의 투구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투구의 양쪽에는 마치 쇠뿔과 같은 모양의 장식(그림 7.)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용맹한 장수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이러한 표현은 고구려 사람들 역시 용맹한 '치우'의 후손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기록과 문양전의 조각이 일치하는 것은 왜일까?

67) 이성미, 앞의 책, 202쪽

백제 사람들이 당시 「술이기」의 내용을 읽고 그 대로 형상화한 것인지, 중국과의 다변외교시 이미 형상화된 대상을 모작하여 형상화 한 것인지, 아니면 구전되어 오던 내용을 토대로 형상화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형상화를 고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림 7. 삼실무덤 벽화

자료 : 조선고적도보

5-4 님은 상과의 조형특성 비교

이와 님은 상들이 고구려 무덤벽화와 신라 식리(飾履)무덤에서 발굴된 식리에서도 보인다.

6세기 고구려 무덤벽화라고 알려진 집안 오회분(五盔墳) 4, 5호 무덤에 그려진 이들 상들은 마치 역사가 하늘세계를 상징하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⁶⁸⁾

이 상은 정면을 향하여 발은 큰 대자로 벌리면서 허리를 낮추고 전신의 힘을 다해 두 팔로 천장을 받치는 모습이다. 짐승의 얼굴 모습이지만 양 어깨의 깃털은 거드랑이로 늘어져 있으며 얼굴을 강조하다 보니 팔과 다리는 짧고 또 약하게 표현되었다. (사진 14.)

또, 6세기 신라 식리무덤에서 발굴된 식리에서도 님은 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상은 식리의 바닥을 9개의 6각형으로 나누고 그 속에 봉황처럼 생긴 것과 번갈아 새겨져 있다. 구도는 마치 힘주



사진 14. 집안 오회분 4·5호무덤 귀면

자료 :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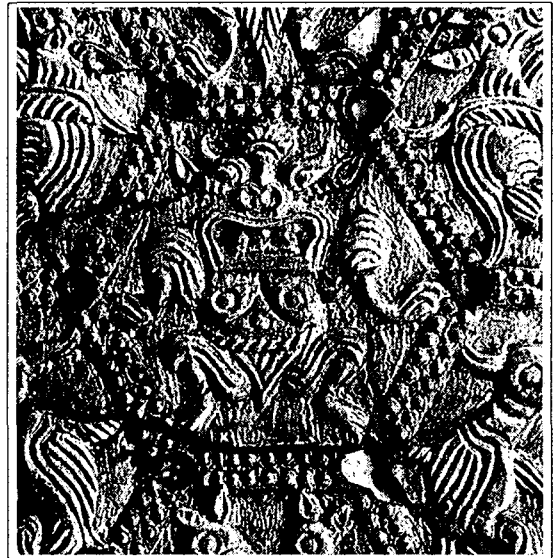


사진 15. 식리무덤의 식리

자료 : 공주박물관

어 일어서려는 역사의 자세로 양어깨의 깃털은 새겨져 있지 않다.(사진 15.)

얼굴을 살펴보면 사나운 두 뿔과 크게 부릅 뜬 두 눈, 크게 벌린 입에는 사나운 이빨이 아래위로 솟아 있다. 또 윗도리는 벗었는데 가슴은 마치 여자의 유방처럼 크고, 배꼽도 크게 새겨 역사의 자세와 잘 어울린다. 아랫도리에는 짧은 바지를 입어 두 다리의 근육질이 상체와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들 두 상은 윗도리는 벗은 채로 가슴

68) 이러한 상은 인도 크리슈나(krishna)신에 기원을 둔 것으로 서역을 거쳐 중국의 북위대에 운강석굴에 나타나며, 고구려로 유입된 후 새로운 형상으로 변형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 유방을 강조한 것이나, 또 아랫도리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의인적인 표현 등에서는 '백제 귀형문'과 닮은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와 자세, 표현법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땅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2천년을 넘지 못하니 3천년의 공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던 역사서 속에서 「치우」는 지위와 덕망이 높은 군신(軍神)으로서, 또 장수들의 용강(勇強)의 상징으로서, 고래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1 연구의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첫째, '有光教'씨가 이들 발굴 문양전에 붙인 이름은 국내 여러 학자들의 유사한 연구를 통해 판단해 볼 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연구 없이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들 문양전이 발굴된 후 일본 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치우'신의 존재가 귀신의 형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군신으로서 벽사의 신”이라는 내용과 “귀의 형상을 통해 무엇을 상징하려 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군신을 귀신으로까지 격하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발굴자가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시각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시대에 따라 차츰 변화되어 도식화 되어버린 벽사적인 상징물을 도깨비로 이름 붙인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사찰에나 중문에는 사천왕 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들 상이 '치우'의 모습과 매우 닮았고, 또 사천왕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면, 소위 '귀신의 범주'로 여겨지기보다는 단지 '수문장'이라는 육된 지위로만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역사적인 유물인 장승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란 이름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져 왔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 백제는 대(對) 중(中) 다변 외교를

통해 한문화에 연이은 남북조 문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민족의 원류와 문화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5~6세기경에 저술된 「술이기」의 내용을 발견한 그들은 그들만의 독창적 표현수법으로 '치우'상을 표현하여 우리의 조상인 '치우'의 용맹성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알려주려 했을 것이다. 이것이 「술이기」의 내용과 문양전의 조형내용이 서로 닮은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귀형문'으로 이름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넷째, 이들 문양전 제작에 음양의 조화를 배려한 도교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가미된 점과 당시 무덤의 축조와 묘지 선정에 사신사상을 상당히 고려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무덤 벽화 등에서 보여지는 머리에 뿔이난 인물을 모두 귀신으로 부르는 것도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양전의 내용은 당시의 사상이 통합되어 그 상징물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징물 모두를 귀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범주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너른 중원 땅을 쉽게 쳐서 빼앗던 '치우' 천황의 용맹과 군신으로서, 또 은신으로서 두텁게 신앙되었던 사실을 잊지 못한 후세들이 용장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전쟁신화가 전해 내려오면서 전통사상과 사대 사상의 지배를 받아 신화의 본지를 잃고 전설 속의 괴물처럼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역사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치우'씨는 우리의 조상이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우'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연결시킬 만한 고리가 유적으로 발견된 바 없고, 또 문제의 제기로 실증성과 객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은채 '치우'와 구려족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니까 이를 '귀형문'으로 불려야 된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 역사학계의 발해연안 지방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보면 발해연안은 우리나라 고조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고대 민족이 끊임없이 활동하던 지역임이 발굴 유물과 인류학적 검증작업을 통해 점차 밝혀지면서 새로운 역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6-2 앞으로의 연구과제

이상의 결론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귀형문'은 우리의 사고와 시각에 맞게 그 이름을 '치우문'으로 고쳐서 다음 세대들이 옳게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다면 다소 미약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접근한다면 실증성과 객관성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함께 발굴된 다른 문전들의 이름은 적합한지 그 여부를 밝히고, 이후 경주 안압지와 평양 안학궁 등에서 발굴되어 이름 붙여진 '귀면와' 등에도 적용되어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인구,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1977.
2. 강인구, 「백제의 역사·전통과 사상 IV」.
3.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삼화인쇄, 2000. 8.
4. 국립공주박물관, 「귀갑문과 귀면문」, 대신문화사, 1990.
5. 김동현 외, 「한국건축사 대계Ⅴ」, 건축과 문양,
6. 김상기, 「동방문화교류사론공」, 율류문화사, 1984.
7. 김은수, 「주해 桓檀古記」, 가나출판사, 1985.
8. 김정배,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9. 김홍식, 「국사대사전」, 대영출판사, 1976.
10. 대한건축사협회,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1989.
11. 박대남, “부여 규암면 외리출토 백제 문양전 연구”,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론, 1996.
12. 박문기, 「貉耳, 대동이」, 정신세계사, 1987.
13. “삼국시대 연화문 연구”, 「역사학보」 34집, 1967.
14. 양기석, “백제의 해외진출”, 「계간경향 87여름호」, 경향신문사,
15. 유원재,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4.
16.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99. 1.
17. 이재인·조병수, 「한국의 기와 문화」, 태학사, 1998.
18. 이증재, 「상고사의 새 발견」, 동진출판사, 1996
19. 이형구, 「한국 고대문화의 기원」, 까치문화사, 1991.
20. 장경호, 「백제사찰연구」
21. 진홍섭, “삼국시대 미술의 정신세계”, 「한국사상사 대계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2.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통권 8호, 1995. 12
23. 한국미술사학회, 「백제미술의 대외교섭」, 도서출판 예경, 1998.
24. 한승수, 「상고사의 재조명 -단군기행-」, 교문사,
25. 홍재동, “부석사의 공간구성 연구”, 울산대 박론, 1998.
26. 井內功, “귀면문와의 연구”, 井內古文化研究室, 1938.
27. 小杉一雄, “귀신형상의 성립”, 「미술사연구 제14책」, 조도전대학교 미술사학회, 1977.
28. 長廣敏雄, 「석곽의 화상」, 「세계미술전집 제14권 중국 3」, 角川書店, 1969.
29. 有光敎一, “부여규암면 문양전 출토 유적과 그 유물”, 昭和11년도 고적조사보고, 1936.
30. 有光敎一, “조선부여신출 문양전”, 고고학잡지, 1937,
31. 板本太郎 외4, 「일본書記 下」, (주)岩波서점, 昭和 40년 7월
32. 사마천, 「중국사기」, 권 1,
33. 왕동령, 「중국민족사」,
34. 왕대유 저, 임동석 역, 「용봉문화 원류」, 동문선, 1994. 5.
35. 北崖저 고동영 역, 「규원사화」, 한뿌리,
36. 「신시본기」.
37. 유성준, 「중국상고신화」, 상해문예출판사,
38. 정재서 옮김, 「산해경」, 민음사, 1996.
39. 朱僕, 文物 제3기, 「修復南京六朝陵墓古蹟中重要的發現」, 1957.
40. 鎮江市박물관, 文物 제4기, 「鎮江東晉畫像磚墓」, 1973.
41. 장홍수편저, 「북조석곽예술」, 陝西인민예술출판사, 1993.
42. 낙양박물관, 「문물 -낙양북위화상석관-」, 1980.
43. 조선고적도보, 동경대학교, 1905.
44. KBS, 「고구려고분벽화」, 동명인쇄, 1994.12.

A Study for Renaming of Paekje's Designed Tiles

-Centering Around the Ghost Image Design Excavated at Oe-ri Kyuam-myun, Buyeo-

Hong, Jae Dong
(Architect · ph.D)

ABSTRACT

We Koreans are very proud of this nation's cultural history over some five millenniums. But most of the relics found in the nation date back up to two thousand years. Under this circumstance, we are wondering the gap and missing of three thousand years.

In our traditional literature of history, 「Chiwoo」 was a military god of supreme dignity and virtue. He was a symbol of brave and strong warriors and since the antiquity, he has been kept alive deeply in the mind of the Korean race.

Considering finding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could provide a conclusion as described below.

1) The name of Paekje's designed tiles was initially made by a Japanese scholar who had first found the antique relic. According to studies by a few of Korean researchers, the name is usually called despite its relation with a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xcavated objects has not been fully studied.

2) After the patterned objects of the Korean antique Kingdom, Japanese researchers reported that 「Chiwoo」 was a military god as exorcist and probably represented something in the form of a ghost, although there were arguments that the military god was the very being to influence the image of the ghost.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Japanese community didn't downgrade the military god onto the level of a ghost.

3) One of our antique nations, Paekje at that time sought to determine the origin and culture of the Koreans by making multiple exchange relations with China, and probably accepting cultures of the Chinese Han nation and those of the Chinese South and North Dynasty period.

Based on findings from a relevant literature, 「Sulyigi」, people of Paekje attempted to show express the image of Chiwoo in their own unique ways and then deliver the strong bravery of 「Chiwoo」 to us, or their descendents. This can explain that those findings as above mentioned are consistent with the designed tiles of Paekje, and that the tiles should not be named as the design of ghost.

4) The designed tiles involved elements of Taoism and Buddhism and substantially considered the spirit of four gods which was mobilized for the tomb construction and selection at that time. But this should never be a reason why all of the horned figures seen in tomb wall paintings are collectively treated as ghosts.

5) From the view of historic literature, we can no doubt say that the Heavenly Emperor 「Chiwoo」 was our ancestor. It is not better to say that the relic stuffs as excavated should be referred to the design of ghost image only in that they have yet to be associated historically with other relics. This claim would be newly changed as it becomes clear with historical remains that our antique ancestors kept doing positive activities along the coast of the antique kingdom, Balhae.